

김미정(TBS 교통리포터)

서울시내 교통상황 너무나 한산합니다

날씨가 변덕을 부리던 3월을 지나
꽃망울이 터져나는 4월의 숨사탕 같은 햇살이 마음을 달달하게 한다.
회사에 늦을까 급하게 차에 오른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한다.
“딸깍” 리포터의 청초한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
“오늘 서울시내 교통상황 너무나 한산합니다.
4월의 활짝 핀 벚꽃처럼 아름답고 기분 설레게 하는 하루되세요.
항상 즐겁운전 조심하시구요.”
벚꽃비가 내리는 한산한 서울을 웃으며 달린다.



| TBS 1분 교통정보

교통방송은 파견근무가 있는데, 서울시내 상황만 전하는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는 리포터, 고속도로만 담당하는 리포터, 국도만 담당하는 리포터, 날씨만 담당하는 리포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소속된 교통정보 센터는 전체를 파악해서 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당일에 중요한 소재를 서두로 교통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 원고작성에서 방송까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300여대의 CCTV, 통신원과 시민들의 제보, 인터넷을 통한 버스전용차선의 차량흐름 등의 도움을 받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방송을 하게 돼요.

우선, 출근을 하면 전 근무자에게 지금까지의 교통상황 정보를 인수인계 받아요. 방송시작 10분 전쯤에 CCTV를 보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원고는 방송시작 5분 전쯤에 작성을 해요. 왜냐하면, 교통상황이 1분 사이에도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최대한 방송시간이 가까워야 원고를 작성해요. 잠시 후, 오프닝을 시작으로 1분간의 생방송이 시작되죠.

| 방송 중 중점을 두는 부분

교통방송은 1분을 넘기면 청취자가 지루해 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1분에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교통리포터마다 성향이 있어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좋다고 생각하는 리포터도 있고, 어느 한 부분의 상황을 핵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리포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방송을 할 때, 큰 교통사고가 났다가나 갑작스런 작업으로 정체구간이 발생하면, 오프닝은 돌발 사고나 작업구간 정체로 시작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30초 정도 이후에 다른 정보들을 제공해요.

| 교통리포터의 목 관리

목 관리를 위해 무언가 꾸준히 복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절대 감기에는 걸리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목소리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징후가 보이면 약속도 취소하고 집으로 향하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술을 안 마시게 됐어요. 술을 마시면 목소리가 심하게 잠기는데 특히 아침 방송은 목이 잠기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술은 멀리하고, 음료나 차를 마시게 됐어요.

아침 방송일 때는 잠긴 목을 풀기위해 가끔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노래 한 가락을 뽑기도 하죠. 목에도 도움이 되고, 음악을 들으며 시작하니까 심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겨요.

교통리포터의 직업정신

방송인으로 시간에 철저해 진다는 거예요. 1분 1초에 맞춰서 방송을 하니깐 시간에 철저해 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 34분 35초까지 맞춰달라고 하면,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춰 방송을 하니깐 시간도 잘 지키고, 시계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교통리포터로 일상에서 운전자가 길을 물어보는 경우에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알려줄 때, 쪽 가다가 첫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길을 중심으로 현재 강남대로인데 조금만 직진하면 양재교차로가 나오고 거기서 우회전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CCTV 화면으로 보이는 운전자 꼴불견

예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운전자의 의식이 향상됐어요. 그래도 가끔 보이는 것들이 버스전용차선 위반이에요. 가는 차선이 막히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전용차선을 침범하죠. 그리고, 운전자들이 짜증이 많이 나는 경우일 텐데, 나가는 차선에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등이 아직은 자주 보여요. 나가는 구간은 보편적으로 한 차선이 길게 밀리는데, 뒤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빠져나가는 구간에 와서 끼어들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운전자도 양보하기 싫을 거예요. 꼬리물기는 한 참 단속 중인데도 지켜지지 않는 구간이 많아요. 자기가 조금 더 먼저 가겠다는 마음 때문에 한 순간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죠. 운전자들이 조금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안전하게 운전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정보가 잘못됐다는 항의전화

다양한 사연을 담은 전화가 많이 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고가 나서 사고가 있으니 우회도로를 이용하라고 방송했는데, 방송하는 사이에 사고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은 왜 사고가 안 났는데 사고가 났다고 하나며 항의전화를 하세요. 또,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구간이 있는데, 파악이 되는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막힌다고 방송했는데 그전 지점에 있는 분이 여기서 막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나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보람찬 방송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응원의 전화들도 많이 와요. 목소리 좋다, 항상 유용한 교통정보 잘 듣고 있다, 고맙다, 항상 수고해 달라 등 응원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떤 때는 방송에서 어디가 막히니까 우회해서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을 피해서 갔더니 목적지에 빨리 도착했다며 너무 고맙다고 할 때는 참 뿌듯하고 보람돼요.

요즘은 교통방송에 대한 청취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것 같아요. 다양한 시민제보부터 여러 민원전화까지 교통정보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이 일을 더욱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방송 중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실수들은 방송 초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신입이다 보니 방송이 너무 떨려서, 원고를 작성해 놓고 30여 번을 계속해서 읽다가 순간 제가 방송을 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PD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방송했냐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방송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PD가 웃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한 번은 방송 전까지 너무 바빠서 식사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방송 전이니까 침도 고이고 해서 음식물을 먹지 않는데 그날은 배도 고프는데 시간도 있더라고요. 방송실에 떡이 있어서 빨리 먹고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한 입 가득 물었는데, 그날따라 일찍 연결한 거예요. 할 수 없이 떡을 물고 방송을 했는데, MC가 사탕 물고 방송했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네요. 하지만, 실수는 안 하는 게 좋겠죠.

▮ 직업적인 바람

예전에 비해서는 CCTV 수가 증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도 가능하고, 많은 통신원에게 정보를 받는 등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더 많은 지역에 CCTV가 설치되고 교통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아직까지도 알려주지 못하는 지역의 교통정보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청취자들이 정보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지역의 정보를 물어보는데,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할 때면 많은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서울시내의 교통상황이 여유워졌으면 좋겠어요. 여유로운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운전자의 마음도 거리를 거니는 보행자도 교통 정리하는 경찰관도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는 발전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 독자를 위한 교통정보

교통정보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설 당일, 추석 당일은 정말 100%로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다 막혀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명절은 고속도로나 막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명절 당일은 성묘하러 이동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막혀요. 그런 경우는 서울 도심길을 관통해서 가는 것이 좋아요. 명절 당일은 간선도로의 이용을 피하는 것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방법이에요.